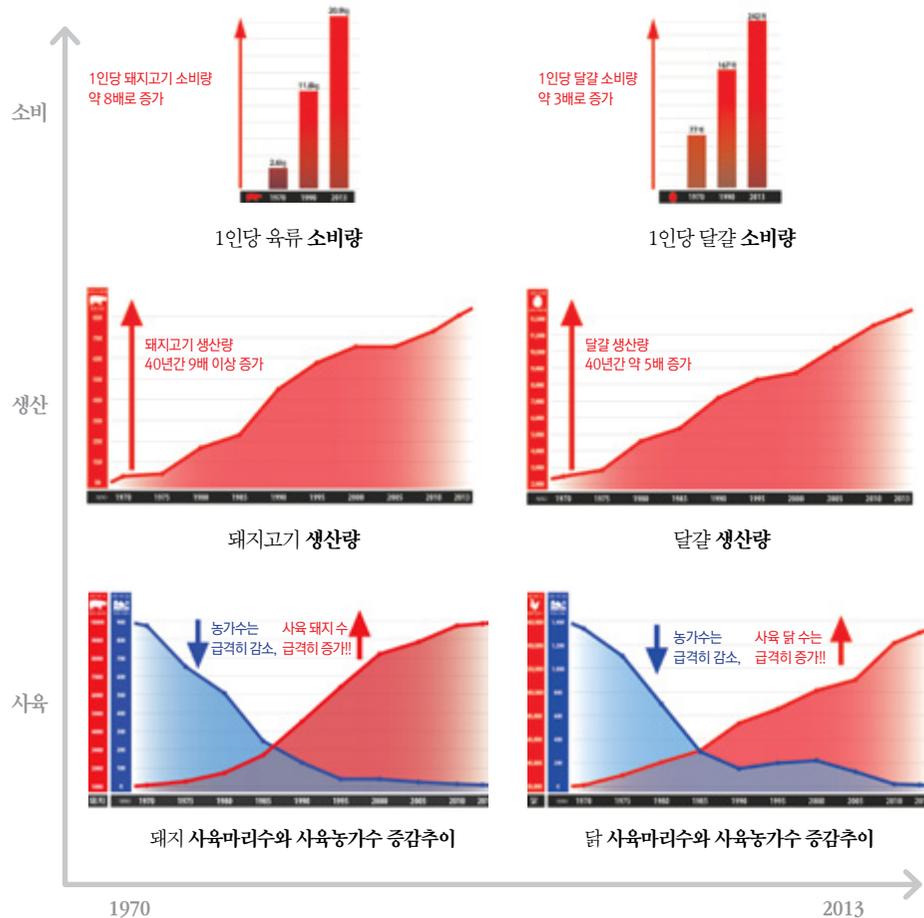


돼지고기와 달걀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동물의 처참한 현실

* 카니발리즘: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으로 동료를 공격하는 행위

** 거세: 수탉의 고환 적출을 의미하며 마취 없이 이루어 짐

*** 육계는 닭고기, 산란계는 달걀 생산을 위한 닭

| | 공장서 돼지의 일생 | | 공장서 닭의 일생 |
|-----------|--------------------------------|-----------|---------------------------|
| 생후 3일 이내 | 송곳니 발치, 꼬리 제거 카니발리즘* 예방 | 생후 즉시 | 육계*** 산란계*** 수평아리는 죽임 |
| 생후 1주일 이내 | 거세** 고기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함 | 생후 35일 | 밀집공간서 살 찌우다 도축 |
| 생후 20일 | 젖을 떼고 어미돼지로부터 분리, 살집 불리기 시작 | 생후 10주 이내 | 부리를 2회 잘림 카니발리즘* 예방 |
| 생후 5~6개월 | 규격화된 몸집이 되면 도축 | 생후 20개월 | 배터리 케이지에 갇혀 달걀 생산 후 도축 |



돼지는 지능이 높은 사회적 동물로 거울을 이용해 먹이를 찾을 수 있다.



닭은 바로 굶여지는 맛있는 사료보다 참고 기다렸다가 맛있는 먹이를 받아먹는 학습이 가능하다.

농장동물도 생명입니다.
우리들을 기억해 주세요

[공장 대신 농장을!] 감금들을 없애자는 서명운동에 지금 참여해주세요!

www.stopfactoryfarming.kr

공장식 축산은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대량 사육함으로써 동물학대는 물론 대규모 전염병 유행, 가축분뇨와 살처분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등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에 위배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공장식 축산 반대 캠페인 '공장 대신 농장을!'을 통해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전형적인 동물학대 생산방식인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스톨 추방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구서교동 457-5) | 전화 02-3482-0999 | 팩스 02-3482-8835
이메일 info@ekara.org | www.ekara.org | 트위터 @ekara_org | 페이스북 /kara.animal



공장 대신 농장을!
나는 공장식 축산을
반대합니다!

“당신은 지금 공장에서 생산된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고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행복한 돼지의 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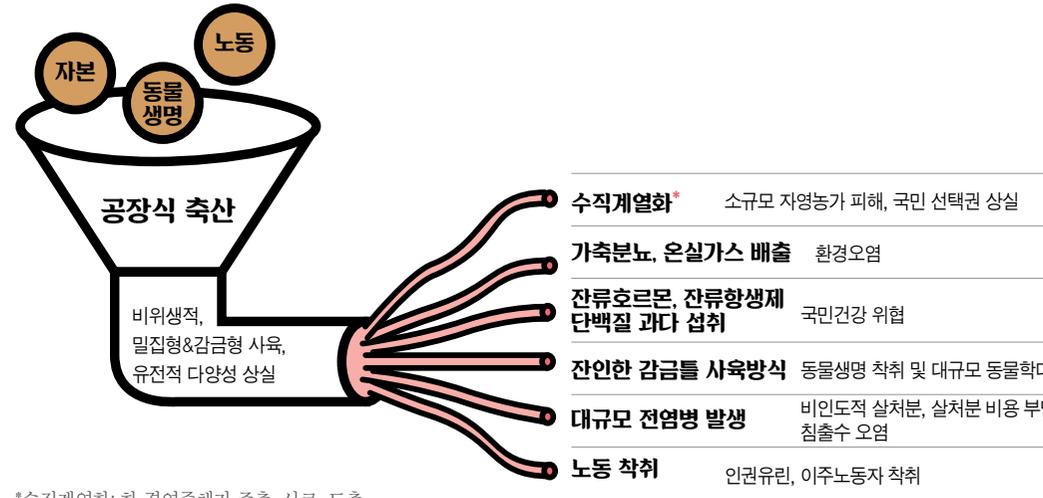
행복한 닭의 일과



'공장식 축산'이란 무엇인가?

CAFO -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듯' 육류와 달걀, 유제품 생산을 위해 동물을 태어나게 하고 사육, 도축하는 수직추구 우선형 축산 방식을 뜻합니다. 공장식 축산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생산량을 최대화 하기 위해 고밀도 사육방식을 양산하고 동물학대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때 가축의 기본적 욕구와 습성은 일체 무시됩니다. 한국은 1990년대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앞두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식 축산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습니다.



*수직계열화: 한 경영주체가 종축, 사료,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통합 운영하는 경영방식

공장식 축산의 상징 스톨과 배터리 케이지



폭 0.6m, 길이 2m의 스톨(Stall)에서 갇혀 사육되는 돼지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앉기와 일어서기만 가능할 뿐 몸을 돌릴 수조차 없습니다. 암돼지는 생후 210일이 되면 인공수정이 시작됩니다. 인공수정으로 임신된 암돼지는 115일의 임신기간을 거쳐 출산합니다. 임신기간 내내 스톨에 갇혀 있던 어미돼지는 출산 후에도 스톨에 갇힌 채 새끼들에게 젖을 줍니다. 어미돼지가 새끼들에게 젖을 주며 함께 있을 수 있는 기간은 고작 20일. 이렇게 어미돼지는 스톨에 갇혀 1년에 최소 2회 강제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번식능력이 퇴화되는 3~4년차에 도축됩니다.

한편 국내 산란계 사육의 경우 철창 케이지를 겹겹이 쌓아 올린 구조물에 동물을 사육하는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로 0.5m 세로 0.5m 크기의 철창에 암탉 6마리가 들어갑니다. 이때 한 마



농장동물은 학대해도 괜찮다?

영국 정부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농장동물의 5대 자유를 선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축일지라도 생명으로서 동물의 기본적 습성을 존중해 주며 사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개 회원국을 둔 유럽연합은 2012년 1월1일부터 배터리 케이지를 전면 금지했으며 2013년 1월1일부터 돼지 스톨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같은 기준을 지킨 축산품을 교역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정부는 한 종류의 가축만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가를 육성하겠다고 하며 규모가 큰 농가에 자동화 설비를 지원하고 지립형 소농보다 대기업 중심 축산 계열화를 지원하는 공장식 축산을 추진해 왔습니다. 동물학대를 무릅쓰고 '경쟁력 강화' 명분하에 생산량증가에만 매달려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이상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스톨 같은 동물학대 생산 방식을 이용한 육류가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식 축산은 오히려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아닐까요?

농장동물의 5대 자유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 1979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국내에서 스톨과 배터리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동물복지인증농장과 극소수인 유기축산 농가 뿐입니다. 2012년 도입된 동물복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된 농장은 전국적으로 산란계 69곳, 양돈 5곳, 육계 2곳에 불과하며,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